

청교도 경건에서 복음주의 경건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건 이해

안재홍(동안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Th.D)

I. 들어가는 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잉글랜드 청교도주의(Puritanism)와의 연속성을 지닌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이면서 동시에 18세기 초에 시작된 이른바 제1차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과 복음주의(Evangelicalism)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¹⁾ 에드워즈의 생애에 관한 가장 방대하고 비평적인 전기를 쓴 미국의 교회사가 마즈던(G. M. Marsden)은 오늘날 에드워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은 그의 생애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²⁾ 그동안 에드워즈는 개혁신교회 전통에 서있었던 청교

- 1) D. W.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London: Unwin Hyman, 1989), 1-74; Mark A. Noll, *The Rise of Evangelicalism: The Age of Edwards, Whitefield, and the Wesley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3), 13-154; Thomas S. Kidd, *The Great Awakening: The Root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in Colonial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1-23.
- 2) George M. Marsden,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Edwards : The Challenge of Biography," in *Jonathan Edwards at home and abroad : historical memories, cultural movements, global horizons*, ed. David W. Kling and Douglas A. Sweeney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도 신학자, 대각성운동의 지도자이자 목사, 18세기 계몽주의적 사고를 전통적인 신학과 독창적인 방식으로 결합시킨 철학적 신학자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본고는 이처럼 다양한 면모를 지닌 에드워즈를 이해하는 핵심이 그가 “경건운동으로서의 청교도주의”를 수용하고 발전시켰다는데 있다고 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에드워즈가 수용했던 청교도 경건전통의 핵심이 이른바 청교도의 ‘실천적 경건’(practical piety)³⁾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에드워즈의 신학과 삶을 추동하는 중심요인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를 청교도 경건전통에서 이해하는 것은 개혁교회 경건전통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에드워즈는 청교도 경건전통의 충실한 계승자 이면서 동시에 에드워즈가 청교도 경건전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18세기 초부터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이른바 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적 경건의 출발과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⁴⁾ 나아가 에드워

즈는 그가 처했던 18세기의 계몽주의와 이른바 복음주의적 각성운동(Evangelical Awakening)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신이 수용했던 청교도 경건전통을 새로운 면모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에드워즈가 보여준 경건과 그 실천의 모습들은 옛 청교도 전통과의 연속성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본고는 에드워즈의 경건의 이해와 실천에 나타난 연속성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그가 수용했던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에 대해 살펴본 후, 대각성이라는 특수한 목회적, 신학적 상황 속에서 에드워즈가 이른바 ‘복음주의적 경건의 본보기’로 제시했던 인물들을 통해 그가 이해했던 경건의 성격을 밝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이 어떻게 에드워즈의 경건의 토대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가 새로운 출발의 중심에 서서 방향을 제시하였던 복음주의적 경건의 특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ress, 2003), 3-4. 마즈던은 에드워즈를 “신학자, 철학자, 예술가, 목사, 설교자, 대각성운동의 지도자, 지역의 지도자, 칼뱅주의자, 청교도, 성서주의자, 천년왕국주의자, 선교사, 교육자, 금욕주의자, 영적 저술가, 엘리트 집단의 일원, 가족의 구성원, 남성으로서의 한 개인, 식민지인이며 국제적이었던 18세기의 사람, 시대착오적인 인물, 근대적인 사람, 오늘의 신학자, 보편적인 사람”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3) 본고에서는 영성(spirituality)이라는 표현보다 ‘경건’(pie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보다는 경건(Piety)이라는 용어를 자신들의 종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했으며, 특히 17세기 잉글랜드의 상황에서 “경건의 실천”(practice of piety)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영성(spirituality)과 같은 개념을 지녔기 때문이다. Jerald C. Brauer, “Types of Puritan Piety,” *Church History*, Vol. 56, No. 1 (Mar., 1987), 39; Gordon S. Wakefield, “Anglican spirituality,” in *Christian spirituality: post-Reformation and modern*, ed. Louis K. Dupre, Don E. Saliers, John Meyendorff, New York: Crossroad, 1989, 257-293.

4) 복음주의는 1730년대부터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와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상호 연결된 일련의 대중적인 개신교 신앙 갱신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으로, 대서양 건너 뉴잉글랜드에서는 대각성 운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D. W.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1; Mark A. Noll, *The rise of evangelicalism: the age of Edwards, Whitefield, and the Wesleys*, 18. 복음주의의 기원에 관하여 맥그라스(McGrath)

는 종교개혁, 청교도주의, 경건주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Alister E. McGrath, *Evangelicalism & the Future of Christianit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5), 23-26.

청교도주의와 복음주의의 개념에 대한 복잡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에드워즈가 이 양자에 대해 갖는 함의는 복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결정적이다. 에드워즈와 복음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라. D. W.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London: Unwin Hyman, 1989). Michael A. G. Haykin, Kenneth J. Stewart, and Timothy George ed, *The advent of evangelicalism: exploring historical continuities* (Nashville, Tenn.: B&H Academic, 2008); Mark A. Noll, *The Rise of Evangelicalism: The Age of Edwards, Whitefield, and the Wesley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3).

II.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과 에드워즈

1.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

오늘날 청교도주의(Puritanism)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왜냐하면 청교도라고 불릴 수 있는 범주 안에는 다양한 강조점과 특징을 지닌 입장 간의 복잡한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특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⁵⁾ 본 연구에서는 청교도주의를 “잉글랜드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원하였지만 잉글랜드를 넘어 분출된, 다양한 비국교도적 흐름으로 갈라져서, 여러 대륙과 외국의 교회들로 넘쳐흘러 들어간 특징적이고 특별한 다양성을 지닌 초기 근대 개혁교회적 개신교”라는 정의를 따른다.⁶⁾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1590년대 초반부터 장로교 교회정치 개혁을 통한 국교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른바 “경건주의적 전환”(pietistic turn)을 시도했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교회 개혁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내적인 경건의 추구로 개혁의 성격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⁷⁾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교도들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설교, 경건문헌, 신학적 논문, 편지들, 일기, 그리고 영적 생활의 모든 영역들과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문헌들을 만들어 냈다.⁸⁾ 이러한 청

교도 경건의 흐름들은 “애정적이고 실천적인”(affectionate practical)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청교도 경건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특징과 더불어 청교도 경건을 형성해 나갔다.⁹⁾

이러한 청교도 실천적 경건의 ‘애정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청교도는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라고 할 수 있다.¹⁰⁾ 백스터의 『그리스도인 지침서』(*Christian Directory*, 1673)는 청교도의 매일의 경건의 실천을 위한 지침들이 담겨있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로서 청교도 실천적 경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백스터는 『그리스도인 지침서』에서 “애정적이고 실천적”이라고 불리는 청교도 저술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¹¹⁾ 이 표현은 청교도 실천적 경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다. 이러한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실천적 경건의 흐름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이르기까지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게서도 연속성을 지니며 나타나게 되었다.¹²⁾ 에드워즈의 저술들에는 그가 수용하고 추구했던 청교도 실천적 경건(practical piety) 전통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있다. 청교도 실천적 경건이란 이른바 “더 뜨거운 종류의 개신교”¹³⁾라고 불렀던 청교도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1590년대 초반부터

5) John Coffey, “Puritanism, evangelicalism and the evangelical Protestant tradition,” in *The Advent of Evangelicalism: Exploring Historical Continuities* (Nashville, TN: B&H Academic, 2008), 258. 청교도 안에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와 같은 열광주의와 분파주의, 평신도 활동주의와 성직자 권위주의, 경건한 공동체와 국가교회, 은사주의적 경험주의와 교리적 정통주의적 입장을 띤 청교도들 간의 다양한 긴장관계가 있었다.

6) John Coffey and Paul Chang-Ha Lim, “Introduc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ritanism*, 1-2.

7) Theodore D. Bozeman, *The precisionist strain: disciplinary religion & antinomian backlash in Puritanism to 163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63-65.

8) Tom Schwanda, “Heart Sweetly Refreshed: Puritan Spiritual Practices Then and Now,” *Journal of Spiritual Formation & Soul Care* vol. 3 no. 1 (2010), 21.

9) Dewey D. Wallace, *The Spirituality of the Later English Puritans: An Anthology*, xii-x v.

10)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60-61.

11) Richard Baxter, *Christian Directory*. Vol. 1 of *The Practical Works of Richard Baxter* (reprint, Morgan, PA: Soli Deo Gloria Publications, 2000), 730-32. 백스터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한 많이 “애정적이고 실천적인” 잉글랜드 청교도 작가들의 책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백스터는 존 프레스톤(John Preston), 리처드 심스(Richard Sibbes), 헨리 스쿠더(Henry Scudder), 조지 스윈녹(George Swinnock), 리처드 그린햄(Richard Greenham),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다니엘 다이크(Daniel Dike), 존 도우네인(John Downname), 나다니엘 레이뉴(Nathanael Ranew) 등의 청교도들과 루이스 베일리(Lewis Bayly)의 『경건의 실천』, 존 도우네인의 『그리스도인의 전쟁』(*Christian Warfare*) 등과 같은 책을 추천하고 있다.

12)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러한 “애정적이고 실천적인” 잉글랜드 청교도작가들, 특히 리처드 백스터, 존 플라벨(John Flavel), 존 오웬(John Owen) 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천적 훈련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인물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ichael J. McClymond and Gerald Robert McDermott,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60-61; Peter Thuesen, “Editor’s Introduction,” in *WJE* 26:42-43.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외적인 교회개혁의 차원에서 내적인 경건의 추구로의 전환을 시도한 이후,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설교와 방대한 분량의 경건문헌들을 만들어 내는 가운데 형성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교도 실천적 경건은 회심에 관한 이해와 추구의 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과 ‘경건의 실천’(practice of piety)이 강조되었다.

특히,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에 있어서 ‘회심’에 대한 이해와 추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회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과 중재하시는 전통적인 ‘은혜의 수단’의 활용을 중요시 했다. 은혜의 수단은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교도 실천적 경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 경건전통에서 은혜의 수단은 일반적으로 공적 예배규정들과 사적인 경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예배규정은 성만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전과 예배로 이뤄지는데, 특히 공적인 예배가 드러지는 안식일 그 자체도 은혜의 수단이었다.¹⁴⁾ 그밖에 공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성서읽기와 설교, 공적 기도, 시편 찬송, 금식일과 감사일, 언약의 체결이나 갱신들이 포함되었다.¹⁵⁾

그런데, 청교도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 이뤄지는 청교도 경건의 공적인 차

원은 가정에서 사적인 차원에서의 경건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에¹⁶⁾ 이런 측면에서 사적인 차원에서의 경건의 훈련이 매우 중요시 되었다. 사적인 차원의 경건의 실천에는 교회밖 가정에서 사적으로 이루지는 규칙적인 모임들, 가정예배와 기도, 교리문답 등 가정에서의 경건의 훈련, 그리고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는 사적인 컨퍼런스(conference), 그리고 은밀한 골방에서 이뤄지는 묵상, 성경읽기, 설교집과 경건생활 지침서 읽기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건의 실천들이 중심을 이루었다.¹⁷⁾

2. 에드워즈와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의 수용

에드워즈의 제자이자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는 에드워즈가 칼뱅주의적인 입장이라는 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준다.¹⁸⁾ 에드워즈가 읽었거나 소장했던, 혹은 읽기를 희망했던 책들의 목록에 대한 비평적 연구를 수행했던 튀센(P. J. Thuesen)도 유사한 맥락에서 에드워즈는 일생동안 그가 물려받은 청교도 정통주의와 그가 살았던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론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말한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영향력이 그를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못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충 주의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¹⁹⁾ 하지만, 에드워즈의 경건과 관련하여서 청교도 전통의 영향은 분명한 것이었다.²⁰⁾

13) “더 뜨거운 종류의 개신교”(the hotter sort of protestants)라는 표현은 콜린슨(Collinson)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헌에서 가져와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이다. Patrick Collinson, *The Elizabethan Puritan move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27.

14) Charles E. Hambrick-Stowe, *The Practice of Piety: Puritan Devotional Disciplines in Seventeenth-Century New England*, 93-135.

15) Charles E. Hambrick-Stowe, “Puritan spirituality in America,” in *Christian spirituality: post-Reformation and modern*, 343-44. 특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앤 허친슨(Anne Hutchinson)과 같이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하나님과의 체험을 강조하는 입장과, 은혜의 수단의 형식 자체의 효용성을 믿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나 이러한 형식들을 사용하여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르미니우스적인 입장에 반대하면서 은혜의 수단의 활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었다.

16) Joel R. Beeke and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859.

17) 위의 책, 346-50.

18) Samuel Hopkins, *The Life and Character of the Late Reverend, Learned, and Pious Mr. Jonathan Edwards: Presidents of The College of New Jersey Northampton* (MA: Andrew Wright, 1804), 44.

19) Peter J. Thuesen, “Edwards’ intellectual background,” in *The Princeton Companion to Jonathan Edwards*, 16-33.

20) Peter J. Thuesen, “Introduction,” in *WJE* 26:3-4; Peter J. Thuesen, “Edwards’ intellectual background,” in *The Princeton Companion to Jonathan Edwards*, 16-33.

에드워즈는 뉴잉글랜드 목회자 가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친 티모시 에드워즈(Timothy Edwards)를 따라 회중교회의 목사의 길을 걷도록 훈련되었던 에드워즈는 어린 시절 지적 훈련과 경건훈련에 있어서 아버지 티모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²¹⁾

그리고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성경을 통해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는 에드워즈의 고백처럼²²⁾ 그의 저술들을 통해 나타나는 청교도 선조들의 성경주의(scripturalism)의 유산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에드워즈의 도서목록의 시작부분에 가장 먼저 등록된 책은 성경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잉글랜드의 비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 에드워즈의 조부이자 뉴잉글랜드의 신학자였던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 등의 저술들을 시작으로 그의 긴 도서목록은 시작되고 있다.²⁴⁾ 에드워즈는 자신의 도서목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칼뱅주의적 비국교도 청교도인 백스터를 그는 애정적이고 실천적인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수장으로 지칭했으며, 그 밖에 또한 토마스 맨톤(Thomas Manton)과 존 오웬(John Owen)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에드워즈는 특히 오웬의 영적인 주석들을 활용했는데, 그는 오웬의 『성령론』(*Pneumatologia*)을 『신앙적 정서론』(*Religious Affections*)에서 인용하였다.²⁵⁾

21) Peter J. Thuesen, “Introduction,” in *WJE* 26:3-4. 티모시 에드워즈는 청교도 경건전통과 실천적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장서목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티모시 에드워즈와 가정의 장서에는 그의 장인 솔로몬 스토다드의 성찬에 관한 논쟁적인 책들과 교리적인 책들,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 존 플라벨(John Flavel), 존 오웬(John Owen)과 같은 17세기 비국교도들의 책들과,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 인크리즈 매더(Increase Mather), 사무엘 윌라드(Samuel Willard) 등의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의 설교와 논문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Peter J. Thuesen, “Introduction,” in *WJE* 26:3-4.

22) Edwards, “Personal Narrative,” in *WJE* 16:797.

23) Peter J. Thuesen, “Introduction,” in *WJE* 26:3.

24) Edwards, in *WJE* 26:95. 그밖에 그의 도서목록 앞부분에는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토마스 셰퍼드(Thomas Shepard), 존 오웬(John Owen), 존 플라벨(John Flavel), 토마스 맨톤(Thomas Manton), 코튼 마더(Cotton Mather) 등의 청교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Peter J. Thuesen, “Introduction,” in *WJE* 26:42-46.

25) Peter J. Thuesen, “Introduction,” in *WJE* 26:42-46.

에드워즈는 다른 어떤 청교도들보다 토마스 셰퍼드(Thomas Shepard)의 작품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는데, 그가 인용한 셰퍼드의 작품들은 『양심, 그 능력과 경우들에 관하여』(*Conscience with the Power and Cases Thereof*), 『신실한 회심자』(*The Sincere Convert*), 『건전한 신자』(*Sound Believer*),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The Parables of the Ten Virgins*) 등이었다. 에드워즈는 다른 어떤 책보다 특히, 셰퍼드의 『열 처녀의 비유』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에드워즈는 특히, 은혜롭고 참된 정서의 열매로서의 실천적 특징에 관해 셰퍼드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청교도 실천적 경건 속에 있었던 청교도들의 영향을 통해 에드워즈는 경건의 토대를 확고히 놓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청교도 경건전통과 실천적 경건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에드워즈는 앞선 청교도 세대로부터 회심과 그것의 신실함, 참된 경건의 본질, 그리고 개인의 신앙적 체험과 성령에 대한 강조라는 두 가지 차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다.²⁷⁾ 이와 같은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을 토대로 에드워즈는 교구민들을 돌보는 회중교회의 목사와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로서의 과업, 그리고 당시의 신학적 도전들에 대해 신학자로서 저술들을 통해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경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표현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 에드워즈가 실천하고 표현해 나갔던 경건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가 목회사역을 통해 전했던 수많은 설교들과 대각성운동의 지도자이자 신학자로서 저술했던 신학

26)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in *WJE* 2:402, 426, 431, 433-34.

27) John E. Smith, “Introduction,” in *WJE* 2:53-57. 예일 판 에드워즈 전집 제2권 『신앙적 정서론』을 편집한 스미스는 에드워즈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회심과 관련하여서는 토마스 셰퍼드, 존 플라벨, 존 프레스톤, 윌리엄 퍼킨스의 영향을, 그리고 체험과 성령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리차드 십스, 필립 도드리지(Philip Doddridge), 존 플라벨, 특히 존 오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적인 저술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저술들보다 그 분량 면에서는 훨씬 적지만 에드워즈의 자서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저술들은 에드워즈가 사적인 차원에서 경험했던 신앙적 삶에 대해 가장 잘 말해 줄 수 있는데,²⁸⁾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Personal Narrative)나 “일기”(Diary)는 적은 분량이지만 에드워즈의 경건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였던 초기 생애와 그의 영적 체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²⁹⁾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 그가 추구했던 경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은 에드워즈 자신이 사용하였던 방식으로서 그가 참된 경건의 본보기로서 제시했던 인물들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다. 에드워즈는 그의 아내인 사라 에드워즈(Sarah Edwards)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와 같은 이른바 복음주의적 경건의 본보기를 제시함을 통해 그가 이해했고 또한 사람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경건의 형태를 제시하였다.³⁰⁾

III. 에드워즈와 복음주의적 경건의 본보기

1. 에드워즈와 경건의 본보기

에드워즈는 그의 저술을 통해 참된 경건의 본보기로서 몇몇 인물들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을 통해 에드워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체험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³¹⁾ 에드워즈가 경건의 본보기들로 제시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노샘프턴을 중심으로 두 차례의 대각성을 경험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자신의 교구민들, 대각성 운동의 상황 속에서 그가 경건생활에 관한 상담을 해주었던 인근 교회의 청년 드보라 헤더웨이(Deborah Hetheway),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젊은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 에드워즈(Sarah Edwards)였다.

에드워즈는 1730년대 노샘프턴에서의 부흥에 관한 증언을 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신실한 이야기』에서 두 명의 주목할 만한 회심의 사례를 체험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³²⁾ 그 첫 번째는 아비가일 허친슨(Abigail Hutchinson)이라는 여인과 베 버틀릿(Phebe Bartlet)이라는 네 살된 여자 아이였다.³³⁾

또한 에드워즈는 1741년 6월 에드워즈는 메사추세츠의 서필드(Suffield, Massachusetts)에 살던 드보라 헤더웨이라는 청년에게 회심 이후의 경건생활의 지침을 담은 편지를 통해 이 청년을 경건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다. 이 편지는 대각성운동의 맥락 속에서 에드워즈의 회심과 경건에 관한 이해가 잘 드러나는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³⁴⁾ 헤더웨이가 살던 지역은 1734년 부흥을 경험한 이후, 다시 1740년 헛필드가 방문하고 1741년 에드워즈가 방문하여 부흥을 경험한 대각성의 중심에 있던 곳이었다. 당시 서필드에는 목사가 없었는데, 회심을 경험했던 헤더웨이는 자신의 영적인 상담을 위해 신뢰할만한

28) Kenneth P. Minkema, “Personal Writing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nathan Edwards*, ed. Stein, Stephen J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9-57.

29) Michael J. McClymond, *Encounters with God : an approach to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37.

30) Stuart Piggin, “Sweet burning in my heart: The Spirituality of Jonathan Edwards,” *Address given at the launch of the Jonathan Edwards Centre, Ridley College, Melbourne* (April 29, 2010): 1-17; Michael J. McClymond, *Encounters with God : an approach to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37-38.

31) Edwards, “Author’s Preface,” in *WJE* 7:89; David E. Clark, “Leveling mountains, drying up rivers : Jonathan Edwards’ historiography applied,”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2001), 233. 클라크(Clark)는 에드워즈가 경건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들로 다섯 명을 제시한다.

32) Edwards, *A Faithful Narrative*, in *WJE* 4:191-205.

33) 위의 책, 199-205.

34) G. S. Claghorn, “Introduction to Edwards to Deborah Hetheway,” in *WJE* 16:90-91; Edwards, “Letter to Deborah Hetheway,” in *WJE* 16:91-95.

목사였던 에드워즈에게 편지를 통하여 영적인 도움을 받고자 했다.³⁵⁾ 그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드워즈는 회심 이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헤더웨이의 질문에 대해 모두 19가지의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다. 에드워즈가 헤더웨이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네가 회심하지 못했던 자연적 상태였음을 알았던 그래서 회심을 추구하던 때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신앙의 측면에서 큰 분투와 진지함을 유지하려고 충고한다.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는 천국을 위해 진지하고 열정적이 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그들이 회심을 얻었을 때에 그들은 신앙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깨어있고, 수고하고 진지해 지는 면이 약해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많이 추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한없는 더 큰 의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회심이 시작한지 몇 달 안되어서 달콤하고 생기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³⁶⁾

이 편지에서 에드워즈는 회심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의 경험 시연이 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더 큰 의무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경건한 삶을 위한 가르침의 중심주제는 이른바 ‘회심을 새롭게 하는 것’³⁷⁾이

35) G. S. Claghorn, "Introduction to Edwards to Deborah Hetheway," in *WJE* 16:90-91. 이 편지는 『젊은 회심자들을 향한 권면』(*Advice to Young Converts*)라는 제목으로 19세기 초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수십만 부가 출판된 기독교 경건의 고전이 되었다. 같은 책, 90-91. 마즈던(Marsden)은 이 편지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된 작품으로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에서 보여주는 그의 엄격함과 균형을 이루는 그의 목회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G. M.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225.

36) Edwards, "Letter to Deborah Hetheway," in *WJE* 16:91.

37) '회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맥기퍼트(M. McGiffert)의 다음의 연구에 나타난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맥기퍼트는 토마스 셰퍼드의 일기와 자서전에 나타난 "경건의 실천" 관한 연구에서 셰퍼드의 성화 이해를 "새롭게 된 회심"(renewed conversion)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한다. Michael McGiffert, "Thomad Shepard: The Practice of Piety," in *Gods Plot: Puritan*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에드워즈는 대각성에 대해 회의적인 자들이 열광주의라고 부르는 공격 앞에서 위에서 언급한 아비가일 허친슨과 베 버틀릿을 그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모델로써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를 “영적인 황홀경에 도취되는 체험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진심어린 신앙의 최상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다.³⁸⁾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젊은 선교사를 은혜로운 경건의 본보기로서 제시했다.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편집하여 1749년에 출판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The life of David Brainerd*)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한 사람의 경건한 생애에 대한 전형형을 제시하였다.³⁹⁾

2. 사라 에드워즈

에드워즈가 경건의 본보기로 삼았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여성이었다. 에드워즈가 다른 저술들 속에서 복음주의적 경건의 본보기로 많은 여성들을 제시하는 점은 그의 경건이해에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친숙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⁰⁾ 특히 에드워즈의 배우자였던 사라 에드워즈(Sarah Edwards)는 에드워즈의 초기부터 성숙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건의 이상적인 본보기로

Spirituality in Thomas Shepard's Cambridge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4), 25.

38) C. C. Goen, "Introduction," in *WJE* 4:68. 1743년 3월에 출판된 『부흥에 관한 몇몇 생각들』에 소개되고 있다.

39) Philip F. Gura, *Jonathan Edwards: America's Evangelical* (New York: Hill and Wang, 2005), 144-47. 마즈던이 표현한 것처럼 이 작품은 “영적 자서전의 형태를 지닌 『신앙적 정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331.

40)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19.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정 속에서 10명의 누이들 속에서 성장하여 그의 성장기는 어떤 면에서 여성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나단의 누이들이 지녔던 정서와 경건의 모습들은 성장기의 그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삼았던 여인이었다. 1723년 청년 에드워즈가 쓴 “사라 피어폰트에 관하여”⁴¹⁾라는 산문시에서 에드워즈는 훗날 자신의 배우자가 될 여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뉴 헤이븐에 한 젊은 여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존재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녀에게 찾아와 넘치는 달콤한 기쁨으로 그녀의 마음을 채워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분을 목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그녀는 그분이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녀를 그분으로부터 떨어져서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잠시 후면 받아들여 올라갈 것과, 세상에서 들어 올려 저서 하늘로 붙잡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여기저기로 달콤하게 노래하면서 다니는데 그녀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들판을 산위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분과 항상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⁴²⁾

이 시에서 나타나는 사라의 경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넘치는 달콤한 기쁨”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을 목상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며, “세상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붙잡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 속에서 홀로 있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한다는 점이다.⁴³⁾ 이러한 경건의 특징은 에드워즈 자신이 초기부터 추구하였던 거룩함과 이른바 실험적 경건과 이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이었다.⁴⁴⁾

이 시에는 에드워즈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 이후 즐겼던 “달콤한”이란 표현이 반복된다. 사라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목상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데 이러한 모습은 에드워즈가 자신이 추구하는 경건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 목상적인 시를 통해 에드워즈는 사라 피어폰트라는 여인의 외모가 아니라, 경건한 내면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속에서 교제하는 삶의 모습을 함께 갈망하며 경건의 본보기로서 그녀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⁶⁾ 에드워즈의 경건 이해에 있어서 이 글이 지니는 가치는 에드워즈가 훗날 이른바 복음주의적 경건의 모델로 제시하였던 자신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⁴⁷⁾가 지녔던 경건의 초기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숙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사라는 계속해서 경건의 모델로서 남아있었다. 에드워즈는 1743년 출판된 『부흥에 관한 몇몇 생각들』을 통하여 경건의 모델로서 자신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의 신앙체험을 “복음적인 경건의 모범”이라는 단락에서 묘사하고 있다.⁴⁸⁾

나는 요즈음 높고 특별한 무아지경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체험을 했던 사례를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한 찬미와 사랑과 기쁨의 정서가 내가 관찰하거나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사례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함께 나타났다. 즉, 아주 상당한 시간동안, 신적인 완전함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의 영광의 광경 가운데 아주 자주 머물면서, 그때 영혼은 빛과 사랑과 달콤한 위로,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영혼의 안식과 위로로 완전히 압도되고 삼켜지게 되었다. 그리

41) “사라 피어폰트에 관하여”는 에드워즈가 1723년경에 저술한 작품이다. 이 글은 본래 제목은 붙여있지 않았었지만 이 글의 주제는 전통적으로 사라 피어폰트에 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비록 원본이 현존해 있지는 않지만 에드워즈는 아마 그녀에게 보낸 책의 표지 안쪽 종이의 여백에 그녀에 대한 이 찬사의 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Wilson H. Kimnach, “Introduction,” in *WJE* 10:278; G. Claghorn, “Introduction,” in *WJE* 16:745.

42) Edwards, “On Sarah Pierpont,” in *WJE* 16:789-90.

43) Edwards, “On Sarah Pierpont,” in *WJE* 16:789-90.

44) G. Claghorn, “Introduction,” in *WJE* 16:746-47.

45)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94; K. P. Minkema, “Personal Writing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nathan Edwards*, 47.

46) G. Claghorn, “Introduction” in *WJE* 16:745-46.

47) 에드워즈는 1743년에 출판된 『부흥에 관한 몇몇 생각들』에서 복음주의적 경건의 본보기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제시한다.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in *WJE* 4:331-41.

48)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in *WJE* 4:331-41.

고 한 번 이상 그리스도의 인격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상냥함과 그분의 탁월하고 초월적인 사랑에 대한 천국의 달콤함에 대한 생생하고 살아있는 광경 혹은 느낌이 다섯 시간이나 여섯 시간 정도 중단없이 지속되기도 했다.⁴⁹⁾

사라 에드워즈의 영적인 체험에 관한 이러한 묘사는 1742년 노샘프턴을 방문하였던 순회 설교자 사무엘 뷰얼(Samuel Buell) 목사의 사역가운데 그녀가 경험했던 특별한 영적 체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⁵⁰⁾ 에드워즈는 사라의 영적인 체험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사람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영혼은 천국의 낙원과 같은 곳에 남아 있었고, 태양 빛에서 작은 먼지가 헤엄치는 것 또는 창가에 다가오는 그분의 빛의 줄기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가운데 헤엄치는 것처럼 했다. 그리고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에 삼켜졌는데, 그 사랑은 하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터 내려오는 달콤한 빛줄기 같은 것이었다. 동시에 영혼은 사랑 안에서 그분에게로 모두 흘러갔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흐르고 또 흘렀다. 마음은 높은 곳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으며, 거의 육체를 떠나는 것 같았고, 영혼을 먹이고 만족시키는 순전한 기쁨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였다.⁵¹⁾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사라의 체험에 대해 신중하게 말하면서 “몇 시간동안의 모든 공간에서의 각각의 일분 간 즐긴 것이 의심할 것 없이 전체 일생동안을 합친 것의 외적인 위로와 기쁨보다 분명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사라의 신비적 체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의미를 부여한

49) Edwards, 위의 책, 331-32.

50) Edwards, “Letter to the Reverend Joseph Bellamy,” in *WJE* 16:99; “Letter to the Reverend Thomas Prince” in *WJE* 16:120-21. 사무엘 뷰얼 목사가 방문하였을 때 에드워즈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에드워즈는 사라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240. 사라의 영적인 체험에 관한 진술은 다음에 나와 있다.

51)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in *WJE* 4:332.

다. 에드워즈는 그녀가 “어떤 무아지경이나 육체적인 감각을 빼앗긴 것”은 아니었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비범한 광경과 신앙적 정서는 몸에 아주 큰 영향을 자주 주었는데, 거룩한 발견의 무게로 인해 가라앉았고, 몸에 힘이 빠져서 서있거나 말할 수 있는 힘까지 빼앗기게 되기도 했으며” 또한 “영혼의 즐거움과 강력한 기쁨으로 힘있게 뛰어오르기도 했다”고 묘사한다.⁵²⁾ 에드워즈는 사라의 신체에 나타나는 영향이 칠 년여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삼년 전 열광주의적인 분위기가 없던 시절에 더욱 강력하게 시작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사라의 이러한 체험들이 부흥의 실례로서 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⁵³⁾

한편, 에드워즈는 그녀의 신앙체험이 열광주의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그녀가 지녀왔던 경건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비범한 방식으로 은혜 안에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졌으며, 큰 시련과 갈등, 죄와의 오랜 투쟁과 싸움, 진지하고 지속적인 기도와 신앙적인 노력 그리고 모든 수단들을 마음을 더해 사용하였고, 삶에 있어서는 엄격하였다. 그로 인해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신앙적인 정서의 큰 증대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동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가장 친한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을 더욱 초월하여 살아가며 의무와 자기부인의 방식들에 신실함과 힘을 더욱 쏟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유혹에 대한 싸움을 감당하며 때때로 있는 큰 시험아래에서 승리하였고, 변화의 사건의 시간들 속에서 요동함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을 지속해 나갔다.⁵⁴⁾

52) Edwards, 위의 책, 332.

53) Edwards, 위의 책, 333. 마이어(Meyer)는 사라의 신앙체험과 같은 것을 “황홀경 가운데 있는 정서적으로 변화된 신체가 복음주의적 체험을 정의하는 특징”이라고 본다. 즉, “복음주의는 언제나 신체에 대한 관계를 영적인 체험의 매개체로 이해하는 것을 공유했다”고 본다. Neil Meyer, “Gracious Affections: Affect and the Rise of Evangelicalism in Early Americ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1), 1-27.

54)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in *WJE* 4:334.

여기서 볼 수 있듯 에드워즈는 사라의 열광주의적으로 보이기까지 체험적 경건의 이면에는 죄와의 싸움, 기도와 신앙적인 분투, 은혜의 수단의 활용으로 인한 영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적 정서의 증대와 외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신앙적인 의무와 자기부인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사라의 신앙적인 체험은 그녀를 전통적인 은혜의 수단의 활용으로 이끌었으며, 그런 차원에서 그녀의 “고양된 정서”는 복음주의적 경건의 본보기로 입증될 수 있었다.⁵⁵⁾ 에드워즈가 묘사한 사라의 경건은 “사라 피어폰트에 관하여”에서 나타난 영적인 아름다움과 경건이 부흥운동의 맥락에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⁶⁾

3.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에드워즈가 1749년 출간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에서 그는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음과 실천에 있어서 참되고 탁월한 기독교적 경건의 참으로 주목할 만한 실제적인 사례”⁵⁷⁾로 아메리카 원주민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 에드워즈는 실제적인 본보기를 제시함을 통해 그가 다른 저술들을 통해 표현한 신앙적 체험과 경건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더욱 구체화 시켜주었다.⁵⁸⁾ 에드워즈는 청교도들의 일기

와 영적 자서전 전통의 맥락 속에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편집하였는데, 일기를 통해 나타난 브레이너드의 생애에는 에드워즈의 경건의 이상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기에 나타난 신학적인 주제들과 영적인 훈련들은 에드워즈의 중요한 관심사였다.⁵⁹⁾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에 나오는 경건은 칼뱅주의적이며⁶⁰⁾ 청교도적 경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 즉 성화에의 추구는 경건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⁶¹⁾ 브레이너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때 나는 결코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만약 내가 거룩할 수 없다면 나는 반드시 영원히 비참해질 것”⁶²⁾이며, “내 안에서 성화가 이뤄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나의 모든 갈망이고, 그것의 성취를 소망하는 것이 나의 모든 기쁨”⁶³⁾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에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경건의 실천이 어떻게 강조되고 수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⁶⁴⁾ 기도

워즈가 제시한 복음주의적 경건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Joseph A. Conforti, *Jonathan Edwards, religious tradition & American cul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64. 존 웨슬리(John Wesley)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가 복음주의적 목사들에게 경건하고 영감 있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책의 축약본을 손수 만들기도 하였다. 복음주의자들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신앙적 정서론』과 짝을 이루는 책으로서 읽혔다. 같은 책, 71-74.

59) Charles E. Hambrick-Stowe, “Spirit of the old writers : the great awakening and the persistence of Puritan piety,” in *Puritanism : transatlantic perspectives on a seventeenth-century Anglo-American faith*, ed. Francis J. Bremer (Boston :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3), 288.; Stephen J. Stein, “Introduction,” in *WJE* 24:12.

60)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신앙이 “전적으로 칼뱅주의적 구상”이라고 불리는 것과 일치했으며, 그의 신앙이 그러한 교리들을 그의 마음에 적용한 것의 영향이었다고 설명한다. Edwards, “An Appendix containing some Reflections and Observations on the preceding Memoirs of Mr. Brainerd,” in *WJE* 7:525.

61) David B. Calhoun, “David Brainerd : A constant stream,” *Presbyterian*, vol. 13, no. 1 (March 1987), 48-49.

62)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in *WJE* 7:214

63) 위의 책, 237.

64) Joseph A. Conforti, “Jonathan Edwards’s most popular work: The life of David Brainerd

55) Neil Meyer, “Gracious Affections: Affect and the Rise of Evangelicalism in Early America,” 236-37.

56)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 A Life*, 241-42. 마스던은 에드워즈의 사라의 경건에 관한 묘사를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잘 익은 속편”이라고 표현한다.

57) Edwards, “Author’s Preface,” in *WJE* 7:96. 에드워즈는 이 책이 “생명력 있는 신앙의 실재와 경건의 능력을 확증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58) John A. Grigg, *The Lives of David Brainerd: The Making of an American Evangelical Ic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29; David L. Weddle, “The melancholy saint : Jonathan Edwards’s interpretation of David Brainerd as a model of evangelical spirituality,”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81 no. 3 (July 1988), 299.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는 19세기 초반 복음주의적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에드

와 묵상, 그리고 죄 죽임과 자기 부인의 실천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경건의 실천은 브레이너드의 경건을 특징짓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 1744년 1월 3일에 기록한 그의 일기의 내용은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고독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은 내 손안에 시간이 무겁게 달려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 이 물러남의 시간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멀리 나아가 내가 행하여야 하는 경건의 시간, 그리스도인의 대화 그리고 진지한 묵상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인디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집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그 주간은, 대부분 곤란함과 무력함 가운데 보낸다. 그리고 더욱 자주 그리고 계속적인 물러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은혜의 보좌에서 낮은 사람처럼 느낀다. 집으로 돌아와서 묵상, 기도, 금식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새로운 광경이 열리고 내 영혼은 죄 죽임, 자기 부인, 겸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갈망한다. 오늘 저녁 내 마음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어느 정도 따뜻함과 열정을 느꼈다. 그래서 잠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자정 무렵까지 그러한 의무들을 행했다.⁶⁵⁾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는 브레이너드의 경건의 특징적인 면모였다.⁶⁶⁾ 브레이너드의 일기에는 반복적으로 그의 은밀한 기도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내가 큰 평안과 고요함 가운데 물러나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은밀한 의무, 즉 기도 가운데 두 시간정도를 보냈다…나는 이제 이곳에 없는 친구들과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큰 달콤함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거룩한 즐거움의 많은 능력이 하루 종일 나에게 남아 있었다.⁶⁷⁾

에드워즈는 기도를 통해 특별한 도움을 얻었으며, 기도 후에는 “달콤함”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⁶⁸⁾ 에드워즈가 경건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즐겨 사용했던 ‘달콤함’이란 표현이 브레이너드에게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⁹⁾ 또한 그의 은밀한 기도는 자주 묵상과 더불어 실천되었다.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에 내 마음은 그분을 닮기 원하는 갈망 가운데 나아갔다. 그리고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들에 대해 찬양 드리는 가운데 달콤하게 축진되었고 점점 날이 길어졌다…그 후에 나는 창세기 5:24의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에 대한 달콤한 묵상을 하였다. 그것은 내 영혼에게 편안한 날이었다.⁷⁰⁾

and 19th century evangelical culture,” *Church History* vol. 54 no. 2 (1985), 194.

65)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in *WJE* 7:233. 에드워즈는 1743년 2월 21일부터의 일기에 대해 개관하면서 일기에 나타난 브레이너드의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 시간 동안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다. 내주하는 죄와 쓸데없음에 대한 탄식, 세상에 대한 죽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의 영광에 이르도록 사는 삶, 그분의 영원한 집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이 녹아내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적이고 공적인 신앙의 활동에 있어서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적인 힘과 용기, 묵상, 기도, 설교, 그리스도인의 대화 시 에 소생케 됨, 위로와 거룩한 달콤함을 자주 경험함.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서, 연구, 기도, 묵상, 설교와 사적인 가르침과 상담에 있어서 큰 부지런함과 진지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WJE* 7:199.

66) David B. Calhoun, “David Brainerd : A constant stream,” *Presbyterion* vol. 13, no. 1 (March 1987): 48.

67)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in *WJE* 7:165.

68) Edwards, 위의 책, 160.

69) Edwards, 위의 책, 186. 1742년 11월 8일 월요일. “밤이 되어 가면서 은밀한 기도 가운데 큰 달콤함을 즐겼다.”;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in *WJE* 7:187. “때때로 묵상과 기도 가운데 달콤한 위로를 지녔다.”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비록 그가 매우 사교적 기질이 많고 성도의 교제를 사랑했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신앙적인 대화를 매우 즐겨워했음에도 불구하고…그의 달콤한 기쁨은 하나님과 그의 영혼사이의 골방의 경건의 시간이었다. 그의 전생애 가운데 회심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잘 발견되는 것이다. 그는 거룩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매우 즐겨워했고 은밀한 의무들 가운데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기 위해 모든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사랑했다.” Edwards, “An Appendix containing some Reflections and Observations on the preceding Memoirs of Mr. Brainerd,” in *WJE* 7:509.

70)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in *WJE* 7:199.

어떤 면에서 브레이너드의 기록과 성화에의 추구에는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⁷¹⁾ 하지만,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성화의 추구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⁷²⁾ 또한 브레이너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보에 대한 간절한 갈망”⁷³⁾을 지녔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종말론적 차원의 내세에 대한 갈망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보에 대한 갈망은 에드워즈와의 연속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브레이너드에게 있어서 회심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에드워즈처럼 경건의 토대와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주제였다. 브레이너드는 회심을 당시의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이 말하는 “갑작스러운 섬광과 같은 즉각적인 회심” 또는 “갑작스러운 조명과 같은 회심”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앞선 세대의 많은 청교도들처럼 자신의 회심과 관련된 영적인 상태의 안전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으며, 그러기에 그는 자주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되돌아보았고, 회심에 있어서 이른바 ‘올법적 공포’ 또는 ‘참회’와 ‘검비’를 인식하며 그것의 반복적인 체험을 중요시 했다.⁷⁴⁾

하지만, 에드워즈는 대각성운동의 상황가운데에서 이러한 열광주의자들의 체험과 성령의 참된 역사와 신앙적인 황홀경을 구분하였다.⁷⁵⁾ 브레이너드

71) David B. Calhoun, “David Brainerd : A constant stream,” 48.

72) David E. Clark, “Leveling mountains, drying up rivers : Jonathan Edwards’ historiography applied,” 239.

73)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in *WJE* 7:187.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보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고 본다. “브레이너드의 기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에드워즈에게 큰 소망을 주었다.” David B. Calhoun, “David Brainerd : A constant stream,” 48.

74) Norman Pettit, “Introduction,” in *WJE* 7:7-8. 웨들(Weddle)은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이 결여된 것을 개인적인 계시의 뚜렷한 체험 안에서의 은혜를 입증하려고 하는 신앙적 열광주의자들과 구별하는 지점으로 해석했다.”고 본다. David L. Weddle, “The melancholy saint : Jonathan Edwards’s interpretation of David Brainerd as a model of evangelical spirituality,”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81 no. 3 (July 1988), 313.

75) Norman Pettit, “Introduction,” in *WJE* 7:7-8.

가 보여준 열정적이고 체험적인 경건의 모습은 “열광주의의 과도함을 피하는 것”이었으며, 성령의 직접적인 직관과 체험을 의존하는 경건의 유형인 열광주의와는 구분되는 것이었다.⁷⁶⁾ 브레이너드는 열광주의자들의 신앙체험과 대비하여 참된 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은 겸손, 깨어진 마음, 자신을 낮추는 황폐함과 거룩함과 은혜의 결핍에 대한 감각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의 존중받는 회심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한데,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비약이나,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향해 제시된 것에서부터 오게 되는 고양된 기쁨이나 정서들과 같은 신앙만을 알고 있다.⁷⁷⁾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에 부록으로 실린 『브레이너드에 관한 성찰과 관찰』⁷⁸⁾은 “에드워즈가 기록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묘사”⁷⁹⁾라고도 불린다. 여기에는 에드워즈가 이해한 브레이너드의 회심과 그 이후의 기록의 추구에 대해 잘 나타나 있다.

브레이너드의 회심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의 새로운 감각의 위대한 대상이었던 아름다움, 그런 종류의 선함, 회심의 때에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풍미와 욕구는 줄곧 분명하고 풍성하였는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유지되고 증대되었던 것은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감 그리고 하나

76) John A. Grigg, *The Lives of David Brainerd: The Making of an American Evangelical Icon*, 146; David B. Calhoun, “David Brainerd : A constant stream,” 48-49.

77)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in *WJE* 7:445.

78) Edwards, “An Appendix containing some Reflections and Observations on the preceding Memoirs of Mr. Brainerd,” in *WJE* 7:500-41.

79) Ian H. Murray, *Jonathan Edwards: A New Biography*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0), 290-310.

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이었고, 이것이 그의 영혼의 중심이었다. 이것이 그의 신앙적 정서의 모든 물줄기들이 나아가는 바다였다. 이것이 그의 간절히 목마른 갈망과 진정한 추구의 대상이었다. 그는 이것 이외에는 행복의 진정한 탁월함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열렬히 그리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갈망하는 것이었다.⁸⁰⁾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경건의 본보기가 “참으로 즉각적인 거룩한 영향, 마음을 초자연적으로 깨우치고 확신시키는, 능력 있게 영향을 끼치는, 기운을 돋우는, 성화시키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참된 실험적 신앙이 있음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실험적인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불리면서 가장하고 그런 모습만을 지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헛되고 치명적인 열광주의로 드러날 뿐이다.”⁸¹⁾라고 하면서 열광주의와 같은 거짓된 신앙을 비판한다. 열광주의자들과 달리 브레이너드의 핵심은 “성품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졌으며, 그의 경건에는 “복음적인 겸손”이 깊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⁸²⁾

한편,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가 지녔던 과도한 우울질적인 성향에 대해 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언급하였다. 면서 브레이너드가 “과도한 내면의 성찰에 몰두해 있으며, 그의 자기점점은 그를 넘어지게 했고 마비시켰고 그의 노력들을 방해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가 이러한 기질로 인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⁸³⁾ 사실,

80) Edwards, “An Appendix containing some Reflections and Observations on the preceding Memoirs of Mr. Brainerd,” in *WJE* 7:506.

81) 위의 책, 520.

82) David L. Weddle, “The melancholy saint : Jonathan Edwards’s interpretation of David Brainerd as a model of evangelical spirituality,” 311; Edwards, “An Appendix containing some Reflections and Observations on the preceding Memoirs of Mr. Brainerd,” in *WJE* 7:506.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신앙적인 조명, 정서, 위로는 복음적인 겸손을 깊이 수반되었다.”고 말한다.

에드워즈는 “영적인 우울함과 침체의 시기와 침체와 죽음”과 같은 시기와 “영적인 황홀경”의 시기를 체험하는 차원에서 브레이너드와 많은 영적인 기질에서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⁸⁴⁾ 또한 브레이너드가 우울한 기질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극복하였던 것은⁸⁵⁾ 에드워즈 자신의 체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⁸⁶⁾

하지만, 브레이너드를 통해 보여지는 경건은 에드워즈와의 불연속성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너드에게는 에드워즈가 보여주었던 자연을 통하여 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쁨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⁸⁷⁾ 『브레이너드의 생애』 속에서 자연 속에서의 “관상”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 등장하는데,⁸⁸⁾ 이러한 점은 에드워즈의 경건이 전통적인 청교도의 경건과 비교할 때의 어떤 강조점의 차이를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에드워즈에게는 경건의 훈련 전통과 더불어 새로워진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심미적이고 관상적인 요소가 동시에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83) Edwards, “An Appendix containing some Reflections and Observations on the preceding Memoirs of Mr. Brainerd,” in *WJE* 7:534-35; Norman Pettit, “Introduction,” in *WJE* 7:19-20.

84)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 A Life*, 332.

85) David L. Weddle, “The melancholy saint : Jonathan Edwards’s interpretation of David Brainerd as a model of evangelical spirituality,” 307. 웨들은 “브레이너드 보다 더욱 ‘성화된 우울’을 지닌 사람이 바로 에드워즈의 부인이었던 사라 에드워즈”라고 본다. 같은 책, 318.

86)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 A Life*, 332.

87) Norman Pettit, “Introduction,” in *WJE* 7:22-23. 페티트는 “에드워즈에 비해 브레이너드가 더욱 청교도적 틀 가운데 뿌리를 박았다”고 말한다.

88) Edwards, *The Life of David Brainerd*, in *WJE* 7:160. “저녁에 북쪽의 빛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대한 관상 속에서 즐거워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한편, 에드워즈의 저술에는 관상(contemplation)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의 경건이 잘 드러난 자서전인 “개인적인 이야기”에는 관상이라는 단어가 13회나 등장한다.

IV. 나가면서

에드워즈가 복음주의적 경건의 본보기로 제시했던 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듯, 그가 추구했던 경건의 실천은 때로는 금욕적인 경건의 추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분투의 차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차원이 긴장관계를 이루며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⁸⁹⁾ 청교도 경건전통에서 엄격한 경건의 실천을 강조한 규율주의적인 흐름(precisianist strain)은 성령의 은혜와 보다 직접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경건의 흐름에 의한 조정의 과정을 거쳤는데,⁹⁰⁾ 이러한 현상은 에드워즈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에드워즈는 자신의 목회지였던 노샘프턴(Northampton) 지역의 부흥과 대각성을 겪으면서 에드워즈도 엄격한 경건의 실천과 성령에 의한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강조점에 있어서 긴장과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대각성 운동의 상황 속에서 열광주의와 반율법주의(antinomianism), 이와 상반된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의 공격에 대항하며 균형 잡힌 경건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에드워즈는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에서 강조했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경건의 훈련과 성령을 통한 직접적인 영적인 체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했던 것이다. 즉, 에드워즈는 자신이 처했던 18세기의 맥락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흐름과 열광주의적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에드워즈적인 경건을 추구해 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교도 경건에서 복음주의적 경건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할

89) W. Clark Gilpin, "Inward, sweet delight in God: solitude in the career of Jonathan Edwards," *Journal of Religion* vol. 82 no. 4 (October 2002), 535.

90) Theodore D. Bozeman, *The precisianist strain : disciplinary religion & antinomian backlash in Puritanism to 163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David R. Como, *Blown by the Spirit : Puritanism and the emergence of an antinomian underground in pre-Civil-War England*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보즈만과 코모는 모두 엄격한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흐름에 대한 반격으로 뉴잉글랜드에서의 반율법주의의 출현이 있었다고 본다.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즈는 개혁교회 전통을 유산으로 삼으며 형성되었던 청교도 실천적 경건전통을 수용·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에드워즈는 오늘날 개혁교회 나아가 개신교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풍성한 경건의 실천(practice of piety) 전통의 유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가 1730년대의 노샘프턴 지역의 부흥과 1740년대의 대각성 운동의 상황 속에서 강조했던 '회심'과 '부흥', '성령의 부으심' 등은 복음주의적 경건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특징이 되었다.⁹¹⁾

미국의 교회사가 마크 놀(Mark A. Noll)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복음주의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복음주의적 개신교회들은 많은 현저한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많은 미국의 복음주의적, 개신교적 교회와 운동들이 성경과 기독교적 체험을 강조한 청교도적 특징을 지녔음을 지적하면서 미국 교회 내에서의 복음주의적 경향들이 한국교회에게 주는 시사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⁹²⁾

놀의 주장과 같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복음주의 혹은 청교도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교회는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청교도적 신앙유형이 초기부터 깊이

91) Thomas S. Kidd, *The Great Awakening: The Root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in Colonial America*, 322-23. 페인(Payne)은 대각성의 맥락에서 에드워즈가 회심 이야기를 강조하며 회심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도한 것과 『신앙적 정서론』을 통해 청교도 경건에서 복음주의적 흐름으로 전환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한다. 즉, 에드워즈는 "청교도주의와 복음주의의 위대한 중재자"로서 있었다는 것이다. Rodger M. Payne, *The Self and the Sacred: Conversion and Autobiography in Early American Protestantism*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8), 23.

92) Mark A. Noll, *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 how American experience reflects global faith* (Downers Grove, Ill. : IVP Academic, 2009). 특히, 이 책의 제9장 "What Korean believers can learn from American evangelical history"을 보라. 놀은 여기서 미국과 한국이 개신교회들이 지닌 유사점 7가지를 밝히고, 그것이 복음주의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뿌리내렸으며, 한국적인 복음주의적 각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평양 대부흥운동의 경험은 한국교회의 신앙과 경건의 모습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정작 복음주의적 신앙의 요체가 되는 “복음주의적 혹은 청교도적 경건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청교도 경건의 정점을 이루며 새롭게 표출되기 시작한 복음주의적 경건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건과 그 실천에 관한 연구는 한국교회의 신앙과 경건의 실천에 관한 이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칼빈연구』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칼빈연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자격) 논문 투고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조 (투고양식) 투고하는 사람은 「칼빈연구」 논문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2호 양식)

제4조 (내용)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국문초록과 주제어
2. 논문
3. 참고문헌목록
4. 영문초록과 주제어

단, 한국어와 동일한 뜻의 외국어의 주제어를 5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제5조 (논문) ①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또는 학위논문으로 발간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에 있는 내용을 게재할 경우 본래의 내용과 70%이상 달라야 한다.

② 논문은 가능한 통합 학문적 연구를 지향하며, 학문간 연구를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에 적용성이 높은 논문을 권장한다.

③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할 수도 있다.

④ 번호 붙임은 I, II → 1, 2 → 1), 2) → (1), (2) → ①, ② 순으로 한다.

제6조 (논문작성) 논문은 한글 2007이상 혹은 MS 워드 2007로 작성하되 그 형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단, 본문에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다.

1. 편집용지

- 1) 종류: A4(210×297mm)
- 2) 용지방향: 좁게
- 3) 여백: 왼쪽 30mm, 오른쪽 30mm, 위쪽 20mm, 아래쪽 15mm, 머리말과 꼬리말